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홍역·백일해 예방접종 당부, 일본 내 인플루엔자 유행기 진입 시기 호흡기감염병 주의
- 경기장·숙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귀국 시 발열·발진·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건강상태 신고 및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제20회 하계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출국을 앞둔 선수단과 응원단,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

대회에는 45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최대 15,000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에 1,061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경기장뿐 아니라 숙소 등에서 여러 국가의 참가자들이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호흡기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출국 전부터 예방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올해 홍역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8월 25일 기준 549명), 지난해 크게 유행한 백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일본은 이례적으로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기에 진입*하고 있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 일본은 34주 정점기관당(표본감시기관 평균환자수) 1.11명으로 유행기 진입 기준(정점기관당 1.00명) 상회('25년 39주 → '26년 34주)

질병관리청이 일본과 주요 참가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과 국내 유입·추가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홍역·백일해·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의 종합 위험도는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국제 행사 특성상 현지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종합 위험평가 결과]

구분	평가 대상 감염병	아시아게임 종합 위험도	아시아게임 감염병 위험평가 근거(요약)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홍역*, 백일해	낮음	일본 내 유행 지속 및 군중행사 특성으로 유입 가능성은 높으나, 국내 예방접종률이 높음
호흡기감염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침습성 수막구균감염증*	낮음	현지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 유입 시 제한적 전파가 예상됨
신종감염병	메르스*	낮음	일본 발생이 없고 유입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발생 시 중증도가 높음
매개체감염병	뎅기열	매우 낮음	일본 내 발생은 해외유입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사람 간 직접 전파가 없음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매우 낮음	집단급식·공동취식에 따른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
기타	수족구병	매우 낮음	참가자 연령 특성상 노출 및 국내 전파 가능성 매우 낮음

* 일본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apan Institute for Health Security, JIHS) 선정 아시안게임·패러게임 대비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

** 본 결과는 조사시점(26.9.4.)에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향후 정보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 가능

이에 질병관리청은 출국 전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력을 우선 확인하도록 권고하였다. 홍역(MMR) 백신을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백일해 예방을 위한 백신(Tdap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혼합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권고 대상자는 출국 전에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홍역	▶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 -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적어도 1회 접종 * 면역의 증거: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가능 (어린이 표준접종시기: 1차접종 생후 12~15개월, 2차접종 4~6세)
백일해	▶ (어린이) 생후 2, 4, 6, 15~18개월, 4~6세에 DTaP 백신으로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 이후 Tdap 백신으로 매 10년마다 추가접종 실시 ▶ (성인) 이전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매 10년마다 Tdap 백신 접종 ※ 접종력이 없거나 1958년(국내 DTP 백신 도입시기) 이전 출생자: 기초접종(3회) 필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접종 후 6~12개월 후에 Tdap 백신으로 3차 접종) * 단, 백일해 백신 성분에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 Td 접종

현지에서는 경기장, 선수단 숙소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야 한다. 실내에서는 가능한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선수단 공동생활과 단체급식 등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마시기, 식사 전 손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대회를 마치고 입국 시 발열, 발진,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발열·발진·기침·설사·구토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최근 일본 방문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린 후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는 경기장뿐 아니라 숙소 등 공동생활 속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접촉하게 되는 만큼, 출국 전에 예방접종력과 필요한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에서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감염병 대책반을 통해 일본과 주요 참가국의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개요
2. 주요 감염병 예방수칙 및 예방접종 안내문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9050)
		담당자	연구관	구현숙 (043-719-9081)
			역학조사관	이혜련 (043-719-9066)
담당 부서 <협조>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장	유효순 (043-719-7550)
		담당자	연구관	나경인 (043-719-7553)
			역학조사관	김희경 (043-719-7555)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043-719-7950)
		담당자	역학조사관	박신영 (043-719-7736)
			역학조사관	오정현 (043-719-7956)
	종합상황실	책임자	실장	김경호 (043-719-9300)
		담당자	역학조사관	김화미 (043-719-9382)
			주무관	주현동 (043-719-9370)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719-7140)
		담당자	연구관	김동근 (043-719-7150)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은 (043-719-9200)
		담당자	연구관	김자은 (043-719-9210)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3-719-8350)
		담당자	연구관	이혁진 (043-719-8365)



□ 아시아경기대회 개요

- 대한민국 선수단 구성: 41종목 1,061명

【 대 회 개 요 】

- ◆ 대 회 명 :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 기 간 : 2026년 9월 19일(토) ~ 10월 4일(일)
- ◆ 장 소 : 일본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
- ◆ 참가규모 : 선수 및 임원 포함 최대 15,000명
- ◆ 개최종목 : 43개 종목 / 71개 세부종목 / 469개 세부경기

수영,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소프트볼, 농구, 복싱, 브레이킹, 카누, 투기(주짓수, 크라쉬, MMA), 크리켓, 사이클, 승마, E스포츠, 펜싱, 축구, 골프,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카바디, 카라테, 근대5종, 배드민턴, 조정, 럭비, 요트, 세팍타크로, 사격,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스쿼시, 서핑, 탁구, 태권도, 테니스(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테크볼, 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우슈

- ◆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규모 : 41개 종목(크리켓, 배드민턴 제외) 1,061명

□ 아시안패러게임 개요

- 대한민국 선수단 구성: 18종목 333여명

【 대 회 개 요 】

- ◆ 대 회 명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Aichi-Nagoya 2026 Asian Para Games)
- ◆ 기 간 : 2026. 10. 18.(일) ~ 10. 24.(토)
- ◆ 장 소 : 일본 아이치현(나고야 시 등), 시즈오카현 일원
- ◆ 참가규모 : 45개국 3,600~4,000여명
- ◆ 개최종목 : 18개 종목 19개 세부종목 502개 이벤트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사이클(트랙), 사이클(로드), 시각축구, 골볼, 유도, 역도, 사격, 좌식배구, 수영, 탁구, 태권도, 휠체어농구, 펜싱, 휠체어럭비, 휠체어테니스

- ◆ 대한민국 선수단 참가규모 : 18개 전 종목 333여명(선수 199, 임원 131)

2025.10.24. 질병관리청

전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전·후
홍역 예방은 필수!**

✈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력 확인*

- 접종 기록이 없거나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 2회 접종
- *접종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여행 후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 진료받기

- 귀국 후 발열·발진 시, 진료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타인 접촉 최소화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비누로 30초 손씻기!

2025.11.10. 질병관리청

전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전·후 홍역 예방은 필수!

1/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은 어떤 질환일까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기침
 발열
 결막염

콧물
 구강 내 반점

• 주요 증상(잠복기 7~21일)
초기에는 감기처럼 발열, 기침,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홍반성 발진**이 발생합니다.

2/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 방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기관지 폐렴
 급성 뇌염
 중이염
 설사

• 발열, 발진 외에 합병증(기관지 폐렴, 급성 뇌염 등) 발생이 가능하며,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여행은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3/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 해외 발생현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방접종 미접종 및 접종 연기로
전 세계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약 17만 명 → 23년 약 32만 명 → 24년 약 35만 명

지역별 주요 발생 국가

-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
- 유럽: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프랑스 등
-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 동남아시아: 인도, 태국, 네팔 등
- 중동: 예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 출처: WHO, 23년 1월~8월까지 홍역 유행 국가, 23년 10월 보고자료

• 국내에서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통한 선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8

홍역, 국내 전파 가능 경로는?



-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인증(WHO, '14년)을 받았으나, 면역이 불충분한 영유아·성인이 해외에서 감염되어 가정, 의료기관, 학교 등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 홍역 환자는 등교·출근을 자제하고, 진료 등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8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여행 전

-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력 확인*
*접종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 기록이 없거나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 2회 접종

여행 중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여행 후

-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입국 시
감역관에게 알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6/8

홍역 예방접종 기준, 한눈에 확인하세요!

<연령별 홍역 예방접종 기준>

연령	접종 방법
생후 0~5개월	접종대상 아님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홍역 유행 국가 출국, 학원·유치원 입학 등 신속한 면역 획득이 필요할 때 표준접종 외 시행	1회 접종 * 가속접종은 표준접종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후 12개월 이후 표준접종 일정에 맞춰 2회 접종 필요
생후 12~15개월 (표준접종)	1차 접종
4~6세 (표준접종)	2차 접종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가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7차년도 1회) 접종

*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홍역에 대한 자연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불필요

※ 홍역 면역의 증가가 없는 경우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8

해외여행 전·후 홍역 예방은 필수!

건강한 여행,
안전한 일상!

홍역 예방수칙으로
함께해요!



8/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1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6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첫째, 기침예절 실천

- ①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②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③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②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①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②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